

54
100

북한사회와 민족주의 문제

공 관 용
(과) 1/2

1973. . .

국 토 통 일 원

Handwritten signature

]

목 차

제 1 장 김일성 체제의 성립과정	3
제 1 절 토착적 민주주의의 몰락	3
제 2 절 사회주의 혁명의 강행	13
제 2 장 제 15 차 북한노동당 대회	27
제 1 절 기본노선의 재성립	27
제 2 절 혁명과 교육	32
제 3 장 경제합작과 남북연방론	53
제 4 장 종합과 결론	63

제 1 장 김 일성 체제의 성립과정

제 1 절 토착적 민족주의의 몰락

북한에서 해방직후,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고 현준혁을 부위원장으로 한 평안남도 치안 유지회가 발족하면서 8월 16 일에는 평양에서 정치범이 석방되고, 치안 유지회는 전준 평안남도 지부로 개편되었다. 일본군의 항복이 접수된 26 일 밤, 치스차코프는 전준 평남지부 위원장 조만식, 조선 공산당 평남 지구위원장 현준혁 및 후루카와 지사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26 일 오후 8 시를 기하여 평안남도의 정권은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남 인민정치 위원회에 인계된다"고 선언하고, "신정권이 각 도에서 수립된 후에 통일 정부가 수립될 것인바, 신정부의 소재지는 서울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언명하였다. 평남 인민정치위는 전준 지구위 대표 16 명, 조공 평남지구위 대표 16 명의 좌우 합작체로 구성되었다.

당시 북한에는 공산주의의 확고한 조직 기반이 없었으며, 출육한 소수의 공산주의자들도 제대로 훈련받은 자가 거의 없는 데다가, 공산주의자를 자칭한 자도 따지고 보면 급진적 민족주의에 가까운 경우가 허다하여,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일거에 성취하기에는 기초적 여건이 불비하였기 때문에, 소련군은 편의상 좌·우 합작, 혹은 보수적 민족주의 세력을 앞세운 과도적 접수 체제를 강구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중의 존경과 지지를 받는 보수적 민족주의자인 조만식을 내세움으로써, 자칭 해방자로서의 명분을 확보하는 동시에, 각지에 산재한 미완성 좌익 계열을 그들과 합작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세력의

확대를 기한 일석 이조격의 점령정책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초기 접수체제는 어디까지나 과도적 조치로써 공산주의의 조직 기반이 확고해짐에 따라서 본격적인 계급혁명을 예기한 일종의 기만 정책이었다.

지역별 지배체제를 수립한 소련군은 도단위의 행정체제를 통합하는 중앙기구의 설치를 추진하였다. 10월 8일, 평양에서 북조선 인민위원회 대표 대회가 개최되고, 11월 19일 북한 5개 도를 통합한 북조선 행정국이 개설되고, 평남 인민정치위원장 조만식이 책임자에 취임하였다.

소련군을 따라서 평양에 들어온 김일성(본명은 김성주, 당시 소련군 소좌계급)의 환영회가 10월 13일 평남 인민정치위의 주최로 베풀어지고, 14일에는 조선공산당 서북 5도 당 책임자 및 결성자 대회에서 조공 북조선 분국의 설립이 결성되어, 서울에 있던 조공 중앙 위원회의 인준을 얻었고(23일), 분국 책임자에는 김용범이 취임하였다.

그리하여 1945년 11월 중순까지에 북한에는 5개 도를 통합한 공산당과 행정기구의 이원적 지배체제가 수립되었다. 당과 정부의 이원적 지배체제는 12월 17일 제3차 확대 집행위원회에서 김일성이 당책이 되고 다시 1946년 2월에는 북조선 인민 위원장에 취임함으로써 일원화되어 북한판 스탈린 체제로 낙착하였다.

그동안 북한에서는 조만식이 중심이 되어 조선 민주당이 결성되었다. 소련군은 10월 중순부터 김일성으로 하여금 조만식에게 민주당의 창당을 종용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소련군으로서는 공산당의 급격한 조직확대에 따르는 민심의 반발을 수습하기 위하여, 가장

된 정당정치 전술을 썼을 것이다.

민주당이 정식 발족할 때에는 공산당의 최용건과 김책이 각기 부당수와 정치부장으로 참여하였고, 결당 3개월 이내에 북한 전역에 도·시·군·면 당부가 결성되고 당원수늘 50만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소련 군정의 공포정치와 치스차코프 포고에 의한 정당단체의 등록 및 인원 명부 제출제 등으로 인하여 조민당의 정당기능은 크게 제한되었으며, 반탁운동으로 인한 조민식의 실각 이후로는 오로지 박해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을 뿐 정상적인 정치 활동이란 어림도 없는 실정이었다. 결과적으로 조민당은 북한의 반소 반공세력의 조직과 계보를 드러 내는 셈이 되고 말았다.¹⁾

북한의 보수적 민족주의가 몰락한 직접 계기는 신탁통치 반대운동이었다. 그러나 전후 사정과 여러 가지의 경위로 보아 반탁운동과 같은 직접계기가 없었더라도 공산당에 맹종하지 않는 한 조만간 전면적 숙청을 모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보수 세력을 몰아낸 소련군정의 단계적 점령 정책은 주도 면밀한 것이었다. 소련이 군정 초기에 보수 민족주의계를 포섭하여 지배체제를 수립한 후, 그간에 성장한 공산당과 대체시킨 수법은 폴란드의 경우와 흡사한 점이 있다.

2차대전중 영·불 등지에 망명한 폴란드의 적법정부 시콜스키 정권(후에 미코라주크가 계승하였음)이 독·소간에 분할된 폴란드의 영토를 되찾으려고 스탈린에게 따지고 들자, 스탈린은 폴란드 정부를 기피하게 되고(1944년 1월경부터), 별도로 소련군의 점령

1) 대한민국공보처 발행, 소련군정의 시말 1950. 김창순 북한 15년사

지역에서 성장한 폴란드 민족회의를 상대로 폴란드 문제를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그해 7월 폴란드 민족회의가 체콰에서 민족 해방위원회(공산계의 규합체)를 결성하고 부브린을 수도로 정하자, 소련은 적법 정권을 무시하고 부브린 정권을 상대로 협정을 체결하였던 것이다.²⁾

북한의 김일성 체제는 소련군의 간접 통치기구로서 발족한 것이었다. 김일성은 만주에서 성장하고, 중국 공산당의 일원으로서 동만주 일대를 전전하다가 1942년에 소련으로 건너가서 소련군에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책, 최용건, 최현 등 소련에서 훈련받은 일당 약 300명의 공산주의자와 더불어 1945년 9월에 입북하였다고 한다. 그때 조선 공산당의 본거지는 서울에 있었고, 박헌영 등 조공의 거물과 김일성은 연배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비교가 될 수 없었다. 만주와 소련에서 성장한 김일성에게는 국내적인 기반이 전무하였으나 그에게는 28군 사령관 슈티코프의 휘하에서 소련군에 복무하였다는 특수한 배경이 있었다.

소련 군정이 초기 접수 체제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만식 중심의 보수 민족주의 세력의 항거에 봉착했을때 김일성은 점령군과의 특수한 연고 관계로 인하여, 소련 군정의 비호하에 기존 세력을 물리치고 괴뢰정권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초기 접수체제 시기에 조만식과 협조한 토착 공산주의자 현준혁이 1945년 9월 28일 백주에 대로상에서 암살된 것도 필시 김일성의 음모였을 것이라고 한다.³⁾

반탁 운동을 계기로 보수 계열이 추방된 후,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수립되고(1946년 2월), 3월에는 무상몰수, 무상분

2) Herbert Feis, Churchill Roosevelt Stalin, 1957, P. 191 ff.

3)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5, 1967, P. 311 ff.

배식의 토지 개혁이 강행되었다.⁴⁾ 그래서 중산적 토착 세력과 지식층이 여지없이 몰락하고, 사회 구조의 전반이 사회주의로 개편되면서 북파의 공산주의는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서울에 본거를 두고, 서울에 집결하여, 미군정에 도전하다가 체포령이 내린 박헌영 이하의 조공 수뇌가 월북하였을 때(1946년 후반기 이후)는 김일성이 이미 권좌를 확보한 후였으며, 연배나 당력의 서열을 가지고 따질 처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로부터는 주객이 전도하여 조선 공산당의 정통은 소련군이 북한에 이식한 일단의 괴뢰의 수장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오늘의 김일성 체제는 단계적인 숙청과 권력구조의 개편 및 경제 관계의 철저한 사회주의화에 의한 계층 구조의 재편성 restructurification에 의하여 구축된 것인데, 이제 6.25사변 이후의 과정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950년 12월 별오리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 위원회 제3차 정기대회에서 무정과 김일이 숙청된 것을 위시로, 1951년 11월 동계 4차회의에서 소련 이세파 허가이 등이 노동당원의 입당 처리를 함부로 하였다는 죄목으로 숙청되었고, 1953년 8월 동계 6차 회의에서는 박헌영 이하 남노당의 핵심세력 전반이 6.25남침의 실패와 패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숙청당하였다.

당시의 논고에 의하면, 그들이 "미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의 정세에 관한 허위 보고를 함으로써 남침을 좌절시키고, 남조선 인민과 당의 관계를 이간시켰

4) 이 때 몰수된 토지가 96만 3천정보로서, 전 경작면적 200만 정보의 46%에 달하였다.

다"는 것이다. 6·25 남침과 패전의 책임문제는 김일성에게는 사활의 문제였을 것인데, 북한에서 식객의 신세로 전락한 남로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철저히 숙청함으로써, 김일성은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는 동시에 당내 이질적 요소의 큰 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남로당에 대한 김일성의 적의는 김일성이 소련군을 따라서 입북했을 때부터였다. 그는 왕사를 회고하면서 화요파·M.L.파·장안파·대회파·서울파·서상파 등을 규탄하고, 남조선 공산운동의 실패 책임을 그들의 종파주의 및 미군정, 이승만과의 야합에 전가하였으며, 그들이 사회주의 세력의 분열을 초래하였고, 노동당의 창건(합당)제외에도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위 당원의 5배가·10배가 운동으로 당의 이질성과 이색분자를 증대시키고, 무의미한 폭동선동으로 당의 조직을 노출시켰다고 남로당을 규탄한 바 있다.⁵⁾

1956년 2월,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제기된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론은 김일성의 독재 체제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소련파·연안파 등 당내의 분파 세력이 혹은 평화 공존론으로 기울고, 혹은 집단지도체제를 주창하는 등 김일성의 독재에 반기를 들게 되었다. 아마 그 때가 김일성으로서는 가장 난처한 시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연안파는 국내에 이렇다할 기반이 없었고, 소련과 즉 소련에서 성장한 이세들은 관료·기술자 등 지식층이 대부분이라서,⁶⁾ 군대와 경찰 등 실권을 장악한 김일성 일파와 실력 대결을 할

5) 조선노동당 제3차대회 주요 분헌집 중앙위 사업총계보고,

1956년 4월 23일

6) Asian Survey, "The Russian Faction in North Korea," Vol.

VIII, No.4, April, 1968, P.P.270~280.

만한 처지가 아니었다. 1956년 8월, 중앙위 전원회에서 최창익과 윤공흠 및 박창욱 등 연안파·소련파가 숙청되고, 1958년 1월, 제 1차 대표자 회의에서 여타의 소위 중파주의자들이 숙청됨으로써, 김일성은 당내의 이질 세력을 배제하고 권력을 집중화할 수 있었다.

경제면에서는 1953~56년 간의 전후 복구 3개년계획, 1957~61년간의 5개년 계획, 1961~67년간의 7개년 계획을 수행하면서 소위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강화하였다고 하는데, 3개년 계획 기간중에는 소련과 중공으로부터 상당한 원조를 도입하여 전후 복구에 주력하였으며, 5개년 기간중에는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세우고 농업의 사회주의적 집단화를 달성하는데 치중하였고, 7개년 계획은 추진능력의 결핍과 군사력 증강을 위한 계획수정으로 인하여 목표 연도인 1967년에 이르러 10년 계획으로 연장되어 군사체제의 강화에 광분하였다. 한편 휴전후에 강행된 농업의 집단화 즉 협동조합화와 수공업 및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대체로 1958년에 완료됨으로써 경제관계의 사회주의화가 일단락되었다고 한다. 그 기간 중에 수공업도 집단화가 병행되고, 기업주·상인 등 전쟁중에 이미 몰락한 계급은 국영사업체의 노동자, 사무원 등으로 전락하였고, 그들에게는 철저한 "의식개조"가 강행되었다. 김일성 체제가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기반을 구축한 것은 김일성 자신이 토로한 것처럼 1958년, 대체로 1950년대 말기의 일일 것이다.

그 이전에는 주로 소련에 의존한 중속 공산체제였다. 6.25사변중 수백만이 월남하고, 또 무수한 소위 반동 숙청과 전쟁의 재

화 등으로 거개의 이질적 신분과 계층이 말살되고, 중소 상공업과 부농은 말할 것도 없고 중농층까지 몰락하여 완전히 공산체제로 흡수 통합되고, 당내의 이질세력이 분식된 것이 그 기간의 일이었다.

Lucian Pye 교수는 "증오와 굴욕의 개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증공의 기본 전략이다"라고 분석하고, "증공이 이상으로 하는 혁명의 영웅이란 지속적인 광신적 증오감을 성격상 중요한 요소로 삼는다"고 풀이한 바 있는데,⁷⁾ 김일성 체제와 증공의 유사성으로 보아 그러한 풀이는 곧 북한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5개년 계획기간 중의 경제적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⁸⁾

김일성 보고에 의하면 "5개년 계획 기간에 증공업 부문에서 적어도 생산 성장의 30~50%는 현존 설비 능력의 이용개선으로 능히 달성될 수 있었다"는 주장이나 "노동력의 고갈때문에 농촌에서 공업분야에 노동력이 보충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촌에 노동력이 보충되어야 한다"는 귀결이나, 농률과 기술의 부족을 호소한 사실 및 "우리가 건설하고 발전시킨 공업은 대외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공업제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를 충족시키고 나라의 경제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⁹⁾ 덧붙인 사실 등으로 보아 5개년 계획이 다소 성과가

7) Lucian Pye, Problem of Communism, May-June, 1968.

8) 김일성, 조선노동당 제4회 대회에 대한 중앙위의 활동 보고, 1961년 9월 11일.

9) 김일성, 위와 같음.

있었다. 치더라도 그간에 노동력의 부족, 농물의 저하, 자재와 기계의 부족 등으로 큰 난관에 봉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천리마 운동¹⁰⁾이니, 청산리 방식이니 하는 기발한 방법이 나오는데, 청산리 방식이란, 1960년 2월인가에 김일성이 청산리에서 시범하였다는 경제계획 추진의 독려 방식으로서 "일체의 관료주의적 형식주의를 배제하고, 중앙과 말단을 직접 연결하는 실천적 지도이며 자재·자금·노력의 분산화를 극복하여 중심·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소부르자외적 평균주의의 분배방식을 배제하여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을 세우고, 작업반 우대제를 강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로써 공산당의 관료주의와¹¹⁾ 비능률이 경제계획의 실천에 있

10) 천리마 운동이란 1958년 이후의 공칭운동이다. 김일성은 제 4차 당대회에서 "천리마 운동은 낡은 것과의 투쟁을 통하여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발전하였다. 우리가 사회주의 건설의 양양기에 들어섰을 때,소극분자들과 보수주의 자들은 낡은 공칭 능력과 기준에 매어달리고, 과학과 기술을 신비화하면서 대중의 무궁한 창발력을 억압하려 하였으며,대중의 장엄한 전진운동을 저지시키려 하였다. 따라서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 신비주의를 타파하지 않고는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이룩할 수 없으며, 천리마 운동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로써 천리마 운동이란 생산력의 제고를 가로막는 기술의 빈곤과 기술자의 부족을 철위 통계로써 메꾸는데 목적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후의 천리마 운동은 "천 삼 뜨고 허리 펴기 운동" 등 기록한 노동착취운동으로 번져나갔다.

공산권 문제 연구소 간, 북한총감, '45~'68, P. 384 이하

11) 김일성, 조선노동당 제 4회 대회에 대한 중앙위의 활동 보고, 1961년 9월 11일

어서 중대한 장애 요소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중에도 농민의 동원으로 식량이 크게 부족하지 않았다"든가 "전쟁중 지하에 건설된 무기 제작공장이 기계공업발전의 모체가 되었다" 12) 는 박금철의 보고는 주목된다.

1956년 소련에서 흐루시초프의 평화 공존론이 나온 후로는 소련 공산당 제 20차 대회에서 제시된, "현시기에 있어서의 전쟁방지의 가능성에 관한 문제는 거대한 실천적 의의를 갖고 있다. 우리 당은 상이한 제도를 가진 나라들간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원칙을 견지하며, 제 국가들간의 관계에서 영토 안전, 주권에 대한 호상존중, 불가침, 내정에 대한 불간섭, 평화와 호혜의 5개 원칙에 입각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 애호국가들과 친선적 외교관계를 설정하며, 실무적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전쟁세력을 반대하는 제 인민들의 공동전선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국제 무대에서의 역량 관계의 근본적 변화는 새로운 세계대전을 방지하며, 평화를 유지하고 공고화할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한 전쟁위험은 사라지지 않으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소련의 진지한 노력과 모든 합리적 방안 등을 전적으로 지지하며,소련은 조선인민의 해방자....." 13) 라고 평화공존 내지 대소관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전쟁의宿命적 불가피성은 없다. 이승만의 북진통일의 구호가 전쟁불가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간 관계완화와 접촉협상의 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남북간 상설위원회"의

12) 위와 같음. 박금철 보고, 1961년 9월 11일

13)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결보고서에 대한 조선노동당 제 3차대회의 결정서.

설치를 제외하였다.

제 2 절 사회주의혁명의 강행

북한 공산당의 정책은 1960 년대에 들어서서부터는 차츰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교조주의와 수정주의를 배격하고 국제공산주의의 단결을 호소한 것은, ¹⁴⁾ 평화공존론을 두고 1950 년대 말기부터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소련과 중공의 중간에서 처신에 곤란을 느낀 결과였을 것이다.

5.16 직후에는 미국의 세력이 한국에서 약화될 것으로 보고, 토지개혁, 고리채 청산, 8시간노동제, 중소기업의 진흥,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일종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남조선에 반미 구국통일 전선을 결성하자.", "남조선에 반제, 반독재, 반봉건의 노동혁명정당이 생겨야 한다" ¹⁵⁾ 는 등의 대중 선동을 일삼았다.

1961년 7월, 북한은 소련·중공과 각각 "조·소 호상 원조조약" "조·중호상원조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때 소련과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세계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소련의 평화 애호정책을 전면 지지하고, 소련의 대독 강화조약체결 및 그와 관련된 서베를린 문제 제외 조정, 기타 비엔나에서의 케네디·흐부시초프 회담에서 토의된 문제 등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환영 지지한다고 다짐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해방전쟁의 수행과 민족해방의 투쟁을 지지하는 데는 이의가 없었던 것이다.

1962년 12월에 개최된 조선 노동당 제 4차·제 5차 회의에서

14) 김일성, 조선노동당 제 4차대회에 대한 중앙위 사업보고, 1961년 9월 11일.

15) 위의 같음.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국방력을 가일층 강화하는 데 대하여, 1962년 인민경제생활 총회와, 1963년 인민경제 발전계획 토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북한이 종전에 지향하던 노선과는 판이한 것이었고, 그로부터 북한의 내외 정책은 크게 변모하였다.¹⁶⁾

1960년대 전반기의 북한·노선의 변천은 쿠바사태(1962년 10월)에서 본 미·소관계의 급전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을 견제하고,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하여 쿠바에 반입한 미사일을 케네디 대통령의 핵전쟁도 불사한, 단호한 조치에 당황한 흐루시초프가 사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철수시킨 사실을 중공·북한·쿠바·알바니아등 혁명적 후진 공산당은 중대시하였다.

후일 중·소 이념 분쟁이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도 쿠바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당초에는 흐루시초프의 쿠바 지원정책을 지지하던 중공이 미사일 위기에서 흐루시초프가 후퇴하면서부터 소련을 맹렬히 규탄하게 되었는데, 핵전쟁을 회피하려는 소련과 이를 규탄하면서 카스트로의 혁명·노선을 지지하고,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을 배격하는 중공과의 이념적분규는 내내 화해될 수가 없었다.

중공은 흐루시초프가 쿠바에서 후퇴한 처사를, 쿠바의 독립과 국제 공산주의의 혁명·노선을 제물로 바친 도하나의 "유니히"라고¹⁷⁾ 규탄하였고, 북한·알바니아 등이 이에 동조하였다.

흐루시초프의 조치에 대하여 대부분의 동구 공산당 및 일부 서구 공산당등, 전후 복구와 경제발전에 상당한 성과를 올림으로써 안정기조에 선 공산당들은 대체로 이를 환영하였으나, 혁명적 후진

16)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4기 제5차 전원회의 토의.

17) William E. Griffith, The Sino-Soviet Rift, 1964, PP.60~63.

공산당들은 그것을 "제국주의에 대한 투항"¹⁸⁾ 혹은 "제국주의와 야합"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공산권의 내부 질서는 날로 분열되었다.

후일 몇몇 후진 공산국이 자기 제나름의 자주노선을 표방하게 된 것도 쿠바 사태와 관련되며, 북한이 소련을 비난하고 중공으로 기울어졌다가 다시 자주노선을 선언하게 된 것도 그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수정주의의 소련이 형제 공산당에 대한 신의와 맹방에 대한 공약을 배반하고 평화공존의 미명아래 제국주의와 야합한 것이라고 후진 공산당들은 이를 증대시하였다.

소련이 자체의 국가 이익을 위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교리를 무시하고 평화공존을 빙자하여, 수시로 서방 제국주의와 타협 혹은 야합하게 될 경우, 그들 약소 공산당의 존재가 평화공존을 위한 세력으로 이용당할 것을 우려하고 경계하게 되었다.

특히, 국제 정치상 기형적 존재인 북한은 스스로의 불안정한 지위 Status에 상당한 불안과 의구심을 품게 되어, 제나름의 대비책을 강구하게 된 것 같다.

1962년 12월, 북한 당중앙위 제4기 제5차 총회에서 경제건설과 국방력 강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 수립되고, 전 인민 무장화, 전토 요새화, 인민군의 간부화 및 현대화가 시급한 과제로써 제기된 것이 쿠바사태의 직후였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정책변화는 불가불 경제건설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고, 경제건설의 차질은 자연 민생고를 가중시킬 것이므로, 소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 호소하여 국면을 호도하려고 하였다.¹⁹⁾

18) Ibid., P.61.

19) 월간조선 자료, 1966년 11월, 통권 66.

북한이 평화공존을 배격하고 중공에 편기한 한 결과 소련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경제계획과 준비 강화에 필요한 소련의 지원은 단절되다시피하였다. 그래서, 다시 대소접근의 기회를 노리던 중 흐루시초프가 실각하고(1964년 10월), 코시긴 수상이 하노이를 방문하고(1965년 2월) 돌아가는 길에 평양에 들렀을 때, 공존주의와 국제주의를 확인하는 공동 성명이 발표되면서부터 양자의 관계는 또다시 긴밀해졌다.

그후로 다량의 군사·경제원조가 소련으로부터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월남전쟁의 확대(1965년 2월 7일, 미국이 북쪽을 개시), 한·일 기본조약의 조인(동년 6월 22일) 등과 겹친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소련과 중공의 중간에서 시세에 따라 전전하던 북한은 1960년대 후반기 이후로 소위 자주노선을 표방하고 나섰다. 김일성이 노동당 창건 20주년(1965년) 기념식에서 한 연설에서 수정주의·교조주의·종파주의를 배격하고,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자주성을 증진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사상의 주체·정치외 자주·경제외 자립·국방외 자위를 이룩하는 것이 공산당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풀이하면서,²⁰⁾ 경제건설과 군사력 강화등 전쟁에 대비하는 정책을 다시 호소하고, "궁극적 목표는 남조선에서 민주주의 혁명을 거쳐서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²¹⁾ 호언함으로써 적화통일에 대한 속셈을 스스로 폭로하였다. 김일성에 의하면 경제건설과 군사력강화가 그 수단인 것이다.

20) 조선노동당 창건 20주년에 계하여 경축대회에서 행한 김일성 보고, 1965년 10월 11일.

21) 위와 같음.

내
4

북한의 자주노선은 1966년 8월에 나온 김일성의 "자주성을 옹호하자"는 논설에서 일단 전모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에 의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가 혁명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고, 그 나라 내부의 힘"이라고 하여 사상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또 "개개의 나라의 혁명은 물론 세계 혁명과의 관련하에 진전되는 것이므로, 나라의 주체적 특수성만을 강조하고 마르크스·레닌의 일반적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수정주의에 흘러서도 안되고, 반대로 교조주의적 편향도 배격한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공산당과 공산당의 관계는 완전한 평등·자주·상호의존·내정 불간섭·동지적 협력 등의 원칙에 의존하므로 일개 당의 중앙집권이냐 어떤 나라, 어떤 당이 세계 혁명의 중심 혹은 지도적 당이 될 수 없으며, 대국주의와 내정간섭을 배격한다"고 주장하고, 국제적 반제 통일전선의 형성이 절실한데, 그 통일이 되지 않았음을 개탄하고,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호소하였다. 22)

김일성의 자주노선은 이념 대결이 격심한 중공과 소련을 두고 그 어느 일방도 무시할 수가 없을 뿐더러 모두가 북한 존립의 기반이 되고 있으므로 어느 일방에만 편중할 수가 없는 공교로운 처지에서 궁여지책으로 강구된 일종의 공리타산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주체성을 강조하고, 내정 간섭을 배격하는 등 제법 기세를 올리는 듯하였으나, 기실은 소련과 중공의 상호 견제의 틈바구니에서 제 나름의 행동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교육지책에 불과하였다.

22) 김일성, "자주성을 옹호하자." 노동신문, 1966년 8월 12일자.

“자주노선”과 관련하여 경제분제에 관한 김일의 보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동당 대표자 회의에서 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당면과제에 대하여”라는 보고에서, 김일은 1967년에 끝날 예정이던 7개년계획을 10년계획으로 연장하고, 중공업 체계와 전쟁에 대비한 후방체계를 확립하고, 전토를 요새화하고, 공업시설의 분산화 및 지구별 전력강화를 촉진하는 등 당면한 경제분제에 관한 시책을 제시하였다.²³⁾

김일의 보고와 더불어 주목을 끄는 것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한 김일성의 “현 정세와 우리의 과업에 대한 보고”의 내용이다. 그속에서 김일성은 “월남전과 미제에 대한 타협을 배격하고, 세계도처에서 미국에 타격을 가하고, 그 힘을 분산해야 한다. 미제가 발붙인 곳에서 그들의 손을 얹매어 놓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북한에서의 전쟁력 강화와 경제건설의 병행을 강조하고, “전쟁을 원하지는 않으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호언하고, “우경화의 파오”를 경고하고, “사상개조로써 노동계급을 혁명계급화해야 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의 지도하에 남조선이 해방되어야 한다. 남조선에서 전투적이고 탄력성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을 꾸려야 한다”는 등의 귀절을 나열하였다.

이것은 한국에서 미국세력을 몰아내고, 공산당의 지배하에 한국을 적화정복하고자 말겠다는 결의를 표시한 것이며, 한국에 대한 정면 도전과도 다를 것이 없다.

북한이 평화 공존과 수정주의를 배격한 것은 저들의 체질과 여전이 충공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수궁이 같 것이며, 1964년 10월

23) 조선노동당 대표자 회의에서 한 김일보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당면과제에 관하여”, 1966년 10월 6일.

호부시초프가 실각한 후에 비로소 대소 관계가 긴밀해지고, 대외 관계가 활발해진 것도 소홀히 넘겨 버릴 수 없는 사실이다.

1962년 10월의 쿠바사태가 북한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본 노선에 큰 변동이 있었던 것도 이미 말한 바와 같거니와, 군사력의 강화 등 총동원 태세에 힘을 기울이게 된 것이 1962년 12월을 기점으로 하였음을 다시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1960년대의 후반기부터는 군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공업 분야의 증강에 광분하고 있는데, "월남전과 일본 군국주의의 대두로 인한 방위력 강화 때문에 경제건설에 차질이 생겼다"고²⁴⁾ 스스로 실토하였듯이, 그들의 그러한 광분상이, 변천하는 아시아 정세 내지는 세계정세의 추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다시 말하면, 내외정세의 변동과 김일성의 노선변화에 따라서 북한의 경제 구조의 전반이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구조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산당을 상부계층으로 하고 노동자·사무원·농업협동조합원이 하부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김일성이 말한 "사회주의 체제의 확립"이란 기업가·상인·자유업·기타 다원적인 사회계층이 말살된 상태를 의미하며, 그러한 점에서 오늘의 북한사회는 한국의 사회구조와는 너무나 판이하고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구조의 상부계층을 형성하는 당원의 수가 1965년에는 160만여명에 달하였다고 하는데,²⁵⁾ 그 수는 1961년 8월현재의 방원

24) 노동신문, 1966년 1월 19일자.

25) 조선노동당 제 20주년에 계하여 경축대회에서 한 김일성 보고, 1965년 10월 11일.

1,311,563명(그중 후보당원 145,204명)에 비하여 근 30만이 증가되고, 1965년 제3차당대회 당시에 비하면, 약 45만명이 늘어난 셈이다. 그중 노동자 출신의 당간부가 1956년의 24%에서 1961년에 31%로 늘어난 것은 당원의 성분을 중요시한 결과일 것이다.

북한이 교육의 기능을 중요시 하고 있음은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 하겠다. 1967년 4월부터 북한의 전역에서 실시되었다는 9년제 기술외무교육제도 — 인민학교 4년, 중학교 3년, 기술학교 2년 — 는 북한이 교육기능을 중요시하고, 교육에 상당한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반증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일찌기 레닌은 “부르지와 국가가 문화적이면 문화적일수록 그 나라에서는 학교라는 것이 정치 밖에 있고, 사회 전체에 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점점 교묘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는 자본가들의 계급적 지배의 도구로 완전히 전락하였다. 학교 분야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과 다를것이 없다. 생활에서 유리된 학교란 허위이고, 위선이라고 우리들은 공공연히 성명한다” 라고 말한바 있다.

그는 또, “모든 학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의 ‘이데올로기적·정치적 방향이다. 교육은 ‘이데올로기’의 교육과 정치가 불가분적으로 통합하여, 이데올로기적 원리가 교사로 하여금 사회주의 사회의 요구에 적응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교육의 정치성을 주장한 바 있다.²⁶⁾

북한에서는 “교육의 근본 임무는 개개인과 개성을 발전시키고, 자유로운 사색력과 순화된 정서를 배양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⁴⁸⁾

26) 공산당 분계 연구소 간, 북한총감 '45~'68, 1968, P. 574.

오직 공산주의적 인간 형성에 있다"고 내세우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산당의 궁극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공산주의적 세계관과 지적·육체적 능력을 구비한 자를 양성하는데 있다"고 하며²⁷⁾, 김일성도 청소년들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붉은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표임을 명백히 한 바 있다. 북한의 교육방식이 학과나 기술교육보다도 사상교육·근로동원·군사훈련 등에 치중하여, 피교육자를 일정한 정형; stereotype, 즉 공산주의적 인간상으로 만드는데 치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정치·군사·경제·사회의 모든 면에서 북한이 체제 강화를 서두르는 근본 목적이 소위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에 있음은 물론인데, 김일성은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는 남조선에서의 혁명세력의 강화 여부에 달렸다"고 보았다. 즉, "남조선의 해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국의 식민지 정책을 일소하고, 북반부의 사회주의 세력과 힘을 합쳐서 국토통일을 할 수 있는 혁명적 세력을 남조선에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당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고 노·농대중을 집결하고 광범한 대중을 포괄하는 조직 — 그것은 참된 계급적 이익을 대표하는, 원칙적으로 합법적 조직이 되어야 한다. — 을 이룩하여 남조선에서 광범한 반미 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 노·농, 청년학생, 지식인의 연합을 실현하는 것, 즉 "각 계층을 망라한 인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하며, 그렇게 해서 외세를 배제하고 통일혁명이 완수되면, 통일후의 사회제도는 조선 인민의 총의로써 결정하되, 남조선 인민이 원하면 공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²⁸⁾

27) 위와 같음.

28) 노동당 대표기 의의에 관한 김일성의 보고, "현정세와 우리 당의 임무", 1966년 10월 5일.

그러나 한국에는 그러한 공산주의의 조직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²⁹⁾ 김일성은 "남조선 혁명은 결국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역량의 성장과, 그들의 결정적 투쟁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보고, "우적의 힘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국내의 정세의 신중한 평가를 하지 않고, 모험주의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큰 실패를 초래한다"고³⁰⁾ 경고하였다.

그러다가 1967년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한 정강연설에서는,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투쟁이 고조되고 혁명정세가 성숙되어 우리의 지원을 요할 때는 언제나 남조선 인민들과 힘을 합하여 조국통일을 성취할 결정적 투쟁에 동원될 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다. 이와 함께 우리 혁명기지의 물질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본 담보인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잘 하여, 혁명적 대사업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물질적 준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라고 호언함으로써³¹⁾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도 불사한다는 저의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말았다.

"남조선 혁명은 결국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 역량의 성장과 그들의 결정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김일성의 견해로 보아, 그가 말한 "결정적 시기"란 "남조선에서 각 계급의 애국적 민주세력을 망라하는 광범한 반미 구국통일전선, 즉 노·농, 청년학생, 지식인 등과 광범한 대중을 포괄하는 조직, 참된

29) 6·25때 김일성이 정략상 남로당을 숙청한 것이 통일 혁명의 수행에 있어서 큰 차질을 초래한 셈이다.

30)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한 김일성의 보고, "현정세와 우리당의 임무", 1966년 10월 5일.

31) 북한 총감, P. 731.

계급적 이익을 옹호하는 민주적이고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조직이 형성됨으로써, 인민 정권이 수립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한 시기"를 지칭한 듯하며, "우적의 힘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국내의 정세의 신중한 평가를 하지 않고, 모험주의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큰 실패를 초래한다"고 경고한 사실로 보아, 결정적 시기의 판정에 있어서는 내외정세의 동향, 특히 한국의 정치·경제·군사 등 제반 정세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한국에서 그러한 "통일 구국전선"이나 "인민정권" 따위가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김일성이 판단할 때가, 아마 그가 말한 통일을 위한 결정적 시기일 것이고, 그러한 시기를 포착하여 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하는 준비 기간이 지금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통일방안에 관한 김일성의 의도는 6·25때와 다를 것이 없겠으나, "통일의 결정적 시기"에 호응하여 일제히 봉기할 수 있는 사회주의의 조직적 기반이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김일성의 통일 전략에 지대한 계약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결정적 시기"가 왔다고 김일성이 확신만 하게 되면 다소의 여건을 무시하고서라도 혁명전쟁의 포문은 열릴 것이고 6·25의 재발도 불사할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의 통일혁명의 전략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안은 한국 스스로가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취약성을 배제함으로써 김일성에게 "통일의 결정적 시기"를 허용하지 않음은 물론, 더욱 힘을 길러서 통한 전선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있을 것이다.

북한의 위험은 넓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검토되고 대처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남북통일"은 김일성에게는 "민족해방"인 동시에 "계급혁명"이며, 따라서 적화통일이 아닐 수 없고, 그것을 폭력으로 달성하려고 할 때, "해방전쟁"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 체제는 무엇보다도 괴뢰성을 특징으로 한다. 8.15 해방과 더불어 소련군이 끌어들이 일단의 공산주의 테러리스트 — 소련에서 훈련받은 이름도 기반도 없는 폭력단 — 들이 소련군정의 학정과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안에 항거한 이 나라의 민족주의를 비롯하여, 민족주의와 협조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진 토착공산주의자 까지도 무자비하게 말살함으로써, 소련군정의 신임과 지원을 얻게 된 것이 김일성의 김일성 체제의 발단이었다.

김일성은 1950년대의 말기까지도 소련을 "해방자, 은인"이라고 공공연히 추종했던 것이다. 김일성은 그것도 미진하여 스탈린의 사주와 중공의 지원을 배경으로 민족전쟁·골육상잔의 6.25남침을 감행하여 수백만의 무고한 인명을 앗아가고, 이 나라를 폐허와 초토로 만들고 말았다.

유엔군의 개입으로 위기에 처한 김일성은 소련과 중공의 가세로 간신히 위급한 고비를 넘긴 다음, 휴전 이후 북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강행하여 1950년대의 말기에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철의 스탈린 체제를 그곳에 이룩하였다. 그래서 북한은 집단농장과 강제노동 일색의 감옥천지가 되고 말았다.

1960년대에 들어서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편승하여, 소련의 지원을 확보하고, 전 인민 무장화, 전군 간부화, 전로 요새화, 군비의 현대화를 독려하여 북한 전역을 병영화하고, 중요 군사 시설의 지

내
6

하 이진 및 후방 소개, 전쟁 물자의 분산비축을 서두르는 한편 모든 경제기능을 무기와 군수 물자의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공업 분야의 건설에 집중시킴으로써 군사력 강화, 전쟁 준비에 광분하였다.

그러한 결과, 최근에는 우수한 장비와 강력한 전투 능력을 자랑하는 정규군 외에 130만명이 넘는 노농 적위대가 북한의 방방곡곡에 편성되어, 공산주의의 정치 교육과 정규전 및 게릴라전에 대비한 전투훈련에 남녀 노소할 것 없이 총동원되고 있다.

북한의 학교 교육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맹신하고, 김일성 체제에 융합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공산주의의 인간성을 배양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으며, 북한 전역의 각급 학교의 남녀 학생들은 정규 수업을 제쳐 놓고 공산주의의 이념 주입, 근로 동원, 군사훈련에 철저히 동원되고 있다. 고등 교육은 소위 혁명 투사의 유자녀·당간부등 특수 신분과 노동자·농민 등 기본성분의 자녀에게만 허용되고, 이질적인 신분의 청소년은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김일성 체제의 이와 같은 교조적 호전성은 저들의 통한 노선에 도 여실히 반영되어, 1960년대 후반기부터 김일성은 혁명통일·적화통일·무력통일을 공공연하게 호언하고 있다. 무력으로 한국을 정복함으로써 적화 혁명을 완수하고자 말겠다는 것이 김일성의 망상이요, 무서운 집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은 1950년대의 중반기, 즉 저들의 처지가 무력하고, 국제적으로는 대소 추종이 불가피했던 시기에는 평화공존이니, 남북 협상이니, 평화통일이니 하다가,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단 완결되고, 전쟁준비가 상당히 진전되면서부터는 태도를 표변하여, 혁명·적화·무력통일 일변도로 나오게 되었다.

6·25 남침을 목전에 두고 침략을 온폐하기 위하여 남북 협상과 평화통일론을 들고 나온 것은 아직도 세인의 기억에 새롭거니와 김일성은 상투적으로 용계를 온폐하기 위하여 남북협상·평화통일론을 활용해 왔으며, 근자에는 한반도에서 미국세력을 몰아 내고 무력통일을 완수하려는 저의에서 "민족자결의 방식"과 "외국군 철수는"을 고창하고 있다.

재언할 필요도 없이, 김일성 체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악독한 교조주의적 공산주의이다. 1960년대의 후반기에 들어서 김일성은 자주노선을 선언함으로써 마치 자주성과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듯 하였으나, 소련 군정과 결탁하여 이 나라의 민족주의를 모조리 말살하고, 스탈린의 지령으로 6·25 남침을 감행한 김일성이 이제 와서 자주성과 민족주의를 운위하는 것은 실로 가증스럽고 어이 없는 일이다.

제2장 제5차 북한노동당대회

제1절 기본노선의 재정립

1970년 11월에 있는 북한 공산당 제5차 대회는 70년대와 김 일성체제의 향방을 제시한 정치적 모임으로서 자못 주목되는 것이 었다. 이때 김일성은 기저연설에서 “역사적경험은 계국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지 않으며, 반동적 부르즈와지의 요소를 조 금이라도 허용하면 민족분화는 점차로 말살되고, 사람들은 계국주의 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고 혁명과 건설사업에 열중한 난관에 부딪힌다.”라고 경고하고 “북 고주의적 경향”을 배격하고,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한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에 맞게 사는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남조선에 인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남조선에서 민족적 양심을 가진 만주인사가 정권에 들어 앉아 미제의 첩거를 주장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며,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 장하는 조건이라면 그들과 언제 어디서나 평화적 조국통일 분계를 가지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호언하고, “수정주의는 막스.레닌 주의의 혁명적 진수를 저해하려는 반혁명적 기회주의 사상조류이다. 수정주의의 가장 큰 해독성은 막스 레닌주의의 영도와 프롤레타 리아 목적을 부인하고, 계급투쟁을 반대하며, 적아를 모호하게 하며, 미제의 원지공갈정책에 감을 잡어 먹고, 그릇에 굴복하며, 계국주의 자들에게 추파를 던지며, 계국주의와의 투쟁을 포기하고, 그와 타 협하며, 전쟁에 대한 공포심과 부르즈와 평화 주의사상, 계국주의와

반동들에 대한 환상을 퍼트리면서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시키며, 피압박인민들이 혁명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방해하는데 있다.³²⁾고 주장하였다.

위에서 본 김일성의 교조주의적 편협과 혁명통일예의 집념은 남북대화와 개시틀 목전에 눈 72년 4월에 발표된 김종린(북한공산당 정치위원 겸 대남전략담당외 당비서)의 논문에서도 거듭 천명된바 있으며, 남북대화와는 별도로 북한공산당의 대남전략은 고유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게 된다.

“수령님께서 남조선에서 정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제와 지주 매관자본가 반동 관료배들과의 판가리 싸움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혁명의 기본 방향을 반혁명의 우두머리인 미제에게 두고 그 앞잡이들에 대한 공격을 이에 배합할 것을 제시 하였다. 또한 반혁명을 타승하려면 혁명의 본 군중인 노동계급과 농민을 맑스-레닌주의 당의 주위에 묶어세워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끄리고 진보적인 청년학생 지식인들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애국적 군인 애국적 민족 자본가들과 소자산 계급까지 포함한 광범한 반미구국 통일 전선을 펴므로써 혁명의 정치적 군대를 잘 꾸려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이에 함께 그이께서는 미제와 그의 앞잡이들이 반혁명의 목적에 매달리고 있는 만큼 혁명적 목적으로 맞서야만 농민들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고 정권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하시고 그 기본방도를 밝혀주셨다. 수령님께서 이와 같이 남조선에서 정권 쟁

32) 조선노동당 제 5차당대회(70년 11월)에서의 김일성 연설에서

취를 위한 혁명의 공격 방향과 주공 방향 주력군과 후비군의 편성 및 배치방침, 반혁명에 대한 결정적 타격에 기본 방도등 혁명의 전기간에 걸쳐 틀어쥐고 나아가야 할 전략적 방침들을 포괄적으로 명시하셨다. 정권 문제 해결을 위한 혁명 투쟁은 일반적으로 두개의 단계 즉 혁명의 준비기와 결정적 시기를 거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혁명발전의 이러한 합법칙적 로정을 뚜렷이 밝히시고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 력량을 보존하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축적 장성시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맞을 준비를 가추는 것을 혁명의 준비기인 현단계에서 남조선 혁명의 기본 방침으로 규정하셨다.

수령님께서서는 이에 기초하시어 정치 사상 사업을 앞세우고 당건설과 군중단체 건설 통일전선 사업과 괴뢰군 와해정치 사업을 내밀어 혁명 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반혁명 역량을 고립약화 시킬 조직적 과업을 제시하시고 혁명준비기에 전략적 지도 원칙들을 천명하셨다.

여기에는 반혁명과의 결정적 대결을 피하면서 적극적인 투쟁을 통하여 혁명 력량을 끊임없이 장성 발전시키며 혁명운동 전반을 성과 있게 이끌면서 당면한 모든 투쟁을 정권 전취를 위한 투쟁으로 이끌며 투쟁 성과에 기초하여 혁명 력량을 체계적으로 꾸리면서 그것을 정확히 포착할데 대한 문제 등이 들어있다.

수령님께서서는 이와 함께 주 객관적 정세의 변화에 따라 당면한 시기에 특징을 바로 포착하고 알맞는 중심과업을 내

세우는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매시기마다 전술적 과업을 뚜렷이 제시하셨으며 투쟁구호를 잘들고 투쟁 형태와 방법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동시에 적들의 내부 모순과 약점을 효과있게 이용하며 투쟁의 여러가지 형태 방법 규모를 잘 배합하여 대중 운동을 적극 밀고 나갈데 대한 전술적 지도의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다. 남조선에서 혁명의 결정적시기는 여러가지 형태로 닥쳐올 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 도래한 혁명적 대사변의 이러저러한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시고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전략전술적 문제들에 예견성 있는 해답을 주셨다. 거기에는 반혁명에 결정적 타격을 주고 지체없이 정권을 틀어 쥐데 대한 결정적 시기에 기본 방침과 함께 그 완성을 위한 전략적 지배의 원칙들과 일련의 전술적 문제들이 들어있다.

수령님께서 이와 같이 남조선에서 정권 쟁취를 위한 혁명의 전략 전술을 전면적으로 밝히셨을 뿐 아니라 혁명에 의하여 세워질 정권의 성격과 형태 그리고 이 정권이 수행해야 할 과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판명 하셨다. 남조선 혁명에 관한 이 모든 전략 전술적 방침들은 남조선 사회제도의 성격과 민족적 및 사회적 모순들에 대한 심오한 마스-레닌주의적 분석에 기초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남반부가 처한 특이한 조건과 제급력량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 전망까지 명철하게 예견하고 있다. 더욱이 거기에는 역사상 가장 어려운 역경속에서

분 **각국하의** **강대국** **반혁명** **세력**과 **하위이진** **영광스러운** **항일**
혁명 **투쟁**에 **비상히** **충부한** **경험**과 **나라의** **북반부에서** **가**
장 **성공**으로 **추진된** **인민** **민주주의** **혁명**의 **취종환** **경험**
이 **집중적**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국제적** **혁명운동**의 **추진**은
이 **경험**과 **교훈**을 **이** **국제적** **합장**에서 **충분히** **참작**되어 **있다.**³³⁾

제 2 절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 (1971 ~ 76년)

김일의 **연설**과 **더불어** **주목**되는 **것은** **북한** **내각** **제 1 부수장** **김일**
의 **—** **인민경제발전 6개년 (1971 ~ 76) 계획에 대한 보고** **—** **인바**
그내용은 **중공업발전**과 **전쟁준비** **일련**으로 **강행**되던 **북한**의 **경제정**
책과 **달리** **경공업**의 **발전**, **대중**의 **생활조건**의 **개선**, **농민**의 **소**
득증대등에 **주력**할 **것을** **밝힌** **것**으로서 **어느** **의미**에서 **는** **북한측** **기본**
보선의 **일대** **전환**을 **예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줄수**있는 **것**
이기도 **하였다.**

김일의 **연설**은 **장황**하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요점**과 **골자**만을 **소**
개하고자 **한다.**

조선노동당 제 5차 대회에서
— 인민경제발전 6개년 (1971 ~ 76) 계획에 대한
내각 제 1 부수장 김일의 보고 —

33) - 근로자 4호와 4.28. 노동신문에 실린 김중린의 논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말에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 **위협**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 **월간** **공산권연구** **국**
동문제연구소, 1972년 5월호, 81면 이하.

당은 7백년의 령회기간에 유물화 혁명의 동력을 형성하였으며 특히 분
 아에서 려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박수)

총결정 기관체인 인민교육사업에 취취이룩한 자장은 평과는 동천반적 9
 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것이다. (박수)

(약 950 년도 중등 의무교육제를 실시한데 뒤이어 이를 토대시는 통방에서
 처음으로 전반적 기술 의무교육제를 실시한것은 현명히 후계자들인
 새 세대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역군으로 키우기 위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깊은 백려의수 결과이며 사회주의제도
 의 커다란 우월성의 뚜렷한 표현이다. (박수)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의 실시는 우리나라 인민교육사업
 에서의 획기적인 사변이며 우리나라 인민교육사업이 새로운 발전
 계단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수)

9년제 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청소년
 들이 학교갈 나이가 된때로부터 일한나이까지 정기학교에서의 의무로
 로 기술의무교육을 받을수 있게되었다. (박수)

9년제 기술교육을 받는 학생수는 올해 3백 2십만명이나 되었다. (박수)

9년제 기술의무교육에 의하여서의 일반지식과 자연지식, 현대생산
 에 필요한 기술지식을 배우 청년들이 올해 10만여명이 졸업하였
 으며 2-3년후부터는 해마다 30만-40만명씩 졸업하여 인민경제
 여러부분에 나가지게 될것이다. (박수)

이리하여 지식있는 노력자들의 대열은 끝없이 늘어날것이며 우리
 나라의 전반적 문화 기술 수준은 더욱 높아지게 될것이다. (박수)

기술자 전반기 양성에 있어서는 큰 전진이 있었다. (박수)

두말리우전되는 사회주의 공업화와 기술혁명의 요구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길러내기 위하여 많은 대학과 고등기술학교를 새로 내는 한편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1년 동안 총 100만 명을 배출할 수 있는 9개의 대학과 약 500개의 고등기술학교에서 거의 200여만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이 동안 기간에 40만 명이 가까운 기술자 전문가가 새로 양성되었다. (박수) 인민경제공업원 총수에서의 기술자 전문가의 비중은 1980년의 3.2%보다 지난해에는 5.8%로 높아졌다.

또한 이 기간에 합동농장과 기술자 전문가수는 1.2명으로부터 17.5명으로 달라져 나갔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현대적 공장, 기업소들과 합동농장 그리고 과학문화 기관들이 우리 기술자 전문가들에 의하여 훌륭히 관리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서의 이룩된 가장 큰 성과의 하나이다. (박수)

같은 기간에 부지와 모든 도시에 농업대학, 의학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교양원대학들과 공산대학들이 새로 설치되고 주요 공업기지에 공작대학들이 총 10개 조직되어 지방에 많이 요구되는 기술자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기관부설을 모 자체에서 키울수있는 본론한 환부로 양육해 주도록 하였다.

특히 생산에서 멀어지지 않고 일하면서 공부할수있으며 노동계급속에서의 화업과 기술소유한 인재를 더 많이 키울수있게 하는 선진적인 교육체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많은 공장대학과 공장고등기술학교가 조직되고 통신교육방이 늘어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

일선위 수많은 기술자 (건설자들이) 양성되었다. (이것이) (기술자) (들)
교육부분의 물질기술적 토대두 훨씬 강화되었다. (이것이) (기술) (들) (로)
현대적인 과학연구 실험설비들을 갖춘 김일성 종합대학 제 1호
교사가 완공되고, 322개의 대학이 신설되었으며 특히 9년제 기술
외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1961년으로부터 1969년동안에 2만 6
천여 교실과 1만 5천개의 각종 실험실과 연구실이 새로 건설되었
다. (방송) (수업) (수업)

7개년 계획기간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더욱 늘어나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학년전 아동의 2/3 이상이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본분하고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다. 총결기간의 근로자 학교와 근로자 중학교
공장 기술 학교들이 널리 조직운영되었다.

“본대회에 제출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서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명시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 경제건설 분야에
서의 6개년 계획의 기본과업은 ①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②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 (물질) 기술
적토대들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는것이다.

“1971년으로부터 1976년기간에 공업 총생산액은 2.2배 그
가운데서의 생산수단 생산은 2.3배 소비재 생산은 2배로 늘어나
며 이기간에 공업생산은 해마다 평균 14%의 높은 증가속도로 발전
전할것이다.

“우리는 6개년 계획기간에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를 없애고
공업노동과 농업노동의 차이를 줄이며 여성들은 가정일에서 해방하
기 위한 3대 기술혁명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

로자들을 힘들고 풀이 많이 틀며 비농업적인 노동에서 해방하고 모두가 일을 안전하고 활하게 하면서도 높은 노력 생산능률을 낼 수있게 해야 할것이다.....

노동자들 /
6개년 계획에서의 공업부분의 중심과업은 살을 붙이는 사업을 벌리하여 공업부분 내부구조를 완비하며 우리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지급있는 기계 일용품 생산 기지들을 확장하고 새로운 생산 기지들을 더 꾸려 1976년에 가정용 냉장고는 12만6천대, 가정용 세탁기는 11만대 생산 하도록 할것이다.

테레비콘 수상 공장을 새로 건설하고 도마다 테레비콘 수상기 조립공장을 세워 6개년 계획기간에 연간 테레비콘 수상기생산량을 10만대에 이르게 할것이다.

전자 계산기를 비롯한 계산기계, 기구들과 녹음기, 자동교환기와 같은 방송 통신 기계들의 생산도 빨리 꾸려야하겠다.....

“자급있는 트랙토르 공장을 확장하여 1976년에가서 트랙토르 생산량은 21000대 그 가운데서도 천리마호트랙토르는 1만대, 풍년호 트랙토르는 5천대에 이르게하며 경사지용트랙토르, 물논 트랙토르, 소형 트랙토르와 같은 새로운 트랙토르도 생산해야 할것이다.....

“6개년 계획기간에 선박생산을 3.6배로 늘릴것이며 무엇보다 먼저...먼바다 고기잡이와 해상운수에 필요한 대형 선박 생산을 빨리 꾸려야 하겠다.

6개년 계획기간에 지금 생산하고있는 대형 냉장 운반선과 원양 작업선은 계속 많이 생산하면서 1만톤급 이상의 가공모선과 화물

신을 새로 생산하도록 할 것이다. 새로운 전방계획기간에 청질조선수에 5천톤급 새 진술대를 건설하여 여러가지 대형 선박들을 생산할 수 있게하여 6대 조선소 건설을 다구쳐 어장작업선과 근해 어선들을 건조하도록하고 4월 12일 공장에 원양작업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지를 꾸려야 하겠다.

1976년에 1970년에 비하여 외약물생산은 2.5배 외로기구 생산은 2.4 배로 늘일 것이다. 6개년 계획의 예견된 방대한 기본 건설은 근대공업을 빨리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있다. 중앙전재공업과 지방 전재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자위 교시를 철저히 관찰하여 세멘트, 금속전재, 화학전재를 비롯한 여러가지 전재생산을 빨리 늘려야 하겠다.

지금있는 세멘트 공장들을 확장하며 새로운 지방 세멘트 공장들을 더 건설하여 1976년에 750만톤 내지 800만톤 이상의 세멘트를 생산하도록 해야 하겠다. (박수).....

“6개년 계획기간에 40만추 이상의 방추를 새로 높이며 중국 각 유에서 가는실을 뽑을 수 있는 방추들을 많이 늘려야 하겠다.”

이리해서 1976년에 직물생산량을 5-6억㎡에 이르게 하여 그 가운데서 모직물과 바닐론 데트론천을 비롯한 좋은 옷감은 2억 5천만㎡ 이상 생산하도록 힘써야 한다. (박수).....

“1976년에 가죽구두 생산량을 1000만켤레에 여러가지 질 좋은 신발을 한해동안에 7천만켤레 이상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남새가공품은 14.7 배로 늘일 것이며 콩 강냉이는 물론 생강을 비롯한 모든 있는 원료 원천을 다 동원하여 기름 생산을 높임으로써 1976년에 가서 먹는 기름이 인구 한사람당 매일 15-20그램씩 차려질

물류 하여야 하겠다.

4공장 1호는 맛내기 직장을 후려 1976년에 맛내기 생산량을 2800톤에 육박하게 하여야 하겠다.

“6개년 계획기간에 주요도시들에 제분공장을 꾸리고 30만톤의 옥살생산능력을 더 마련하여 국수생산 시설들을 갖추어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잡곡을 옥살과 국수와 같은 가공품으로 공급하며 밥공장 4공장을 많이 꾸려 여성들이 음식을 만드는 노력을 적극 덜어 주도록 하여 하겠다.

• 1976년에 수산물 생산량은 160만톤 - 180만톤 그가우에서 물고기 생산량은 130만톤에 이르게 하여야 하겠다.

원해 어업기지를 튼튼히 꾸고 원해어선들을 더욱 크게 조직하며 물고기 자원이 풍부한 먼바다 어장에 대담하게 나가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임으로서의 더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할것이다. 먼바다 고기잡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6개년 계획 기간에 1만톤급 이상 의음가공모선들, 3.750톤급 천일트릴선 1000톤급 작업선 5천톤급 냉장유반선을 비롯한 대형 선박들을 더 보충하여 강력한 원양 어선대를 조직하며 김책항과 신포항을 대원양 어업기지들로 잘 꾸리며 양화 원산항도 점차 원양 어업기지로 꾸려야 하겠다. 먼바다 고기잡이와 함께 가까운 바다 고기잡이도 더욱 발전시켜야 할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프락포르 화차 기관을 비롯한 기계설비들은 금속소재의 질이 낮고 필요한 경금속이 보장되지 못하여 부박하고 부거우며 또한 가공을 잘하지 못하여 수명이 낮고 연료 동력소비가 많으며 수명도 길지 못하다.

자동차 같은것은 성능은 결코 다른나라의 것에 못지않으나 도장을 잘하지못하여 모양이 없다. 석달은 세분이 많고 광석이 풀이 낮으며 금속제품 화학제품 세멘트를 비롯한 다른 중공업 제품들의 질도 높지 못하다.

경공업 부분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우리가 생산하는 천은 실이 가늘지못하며 백색도가 높지못하며 색이 빨리 낡고 수축도가 심하며 신발은 맵시없고 질기지 못하다. 또한 철제일용품은 무박하면서 견고하지 못하며 수지일용품과 같이 감은 색깔이 곱지못하며 아담하지못하며 도자기는 희지못하며 유리 제품은 맑지못하다.

그리고 제품포장을 잘하지 못하여 상품의 질을 손상시키며 귀중한 제품을 못쓰게 만드는 현상도 적지않다.

우리가 생산하는 와전이나 페니실린을 비롯한 의약품들이 질은 매우 좋은데 포장의 느슨하여 볼모양이 없으며 오래 못쓴다.

오늘 우리나라에서의 천 신발을 비롯하여 상당히 많은 소비품을 생산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것은 전적으로 소비층이 질이 낮은데 원인이 있다.

만일 우리가 제품의 질을 높인다면 지금 생산하는 양을 가지고 도 인민경제와 근로자들의 수요를 더잘 충족시킬수 있을것이다...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생산자들의 책임성을 높이는것이다. 우리는 생산자들속에서의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생산량에만 치우치고 질은 대수롭지않게 여기는 현상을 없애며 모든 근로자들을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대하여 책임지는 주인다운 입장에서 일하며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알뜰하고

살모있게 성의껏 만들도록 해야 하겠다.

“알곡생산에 큰 힘을 넣어 1976년에 알곡 총생산량을 700-750만톤
그가운데서 벼는 350만톤에 이르게 하여야 하겠다.

“지난 몇해 동안 일부지대들에서의 시험하여본데 의하면 분수식
관계체계를 하고 이모작을 한밭에서는 관계를 하지않은 밭에서보다
2-3배의 높은 수확을 얻을수 있었다. 여기에 알곡생산의 첫에
비가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10만정보의 밭에 분수식 관계 체계를 실시하며 20만정보의 밭
에 도랑인수관수 또는 트랙토루에 의한 강우식 관수를 실시하여야
하겠다.

“이와같이 농업생산의 약화 수준을 더욱 높여 1976년에 가서
알곡작물의 정당 수확고를 논벼는 5.3톤 강냉이는 4.2톤 콩은
2.4톤 남새는 100톤 이상의 수준에 이르게 하여야 하겠다.

“농기계들을 창안 제작하며 그 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여 가까운
년간에 경지 100정보당 트랙토루 대수는 평균 6.2대에 이르게
하여야 하겠다.

그리하여 1975년까지 종합적 기계화가된 면적은 50만정보 이상
에 이르게 하여야 하겠다.

“농경지 정보마다 소화되는 노력은 평균 논은 60내지 80공수
밭에서는 20내지 30공수로 나추므로서 한사람이 논은 5-6정
보 밭은 8내지 10정보 이상 다룰수 있게 하여야 하겠다.

“6개년 계획기간에 이미 닭아눔은 축산업의 토대를 튼튼히하며
축산업은 현대화 집약화 하기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1976년에
가서 40만 내지 50만톤의 고기와 30억개의 알 6만톤의젓

2500 톤의 양털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6개년 계획기간에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과수원을 알뜰히 가꾸며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면서 새로운 과수원을 조성하여 1976년에 과수원 총면적은 30만정보 과일총 생산량은 80만톤 내지 100만톤에 이르게 하여야 하겠다.

“평양시를 중심으로 변경 80키로미터 도 소재지를 중심으로 반경 40키로 미터 구간의 도로들과 군소재지 도로들을 먼저 포장하고 점차 모든 도로들을 다 포장하도록 하고 새로운 도로들을 더 건설해야 할것이다.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 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킬때 대한 6개년 계획의 기본과업으로부터 출발해서 국가 기본건설 투자 총액 78%가 생산적 건설에 돌려질것이며 비생산적 건설에는 22%가 배당될것이다.

기본건설투자 총액에서의 공업건설은 47% 그가운데서의 중공업 건설이 8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것이다.

나라의 면도를 일신시키기 위한 대자연 개조사업이 널리 진행됨에 따라 기본건설 투자 총액의 18%나 되는 방대한 자금이 농업건설에 돌려질 것이다.

“6개년 계획기간에 대학들을 전반적으로 확장하여 양성 규모를 늘이는 한편 자동화대학, 선박전조대학, 과일대학을 비롯하여 새로운 대학들을 세우며 고등기술학교들을 늘여야 할것이며 특히 공장대학과 공장고등기술학교를 많이 늘이고 야간 교육과 통신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게해야. 하겠다.

그래서 6개년 계획기간에 60여만명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새로 양성하여 1976년에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선봉자 기술자 수를 100만명 이상에 이르게 할것이다. (박수).....

“우리는 6개년 계획기간에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높이면서 농민들의 수입을 높이고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하겠다. 새로운 전망 계획기간에 국민 소득은 1.5배로 높아질것이며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실질 수입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조치들이 취해질것이다.

6개년 계획기간에 노동자 사무원들의 노임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훨씬 높여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사무원들의 월평균 노임 수준을 90원에 이르게 할것이다. (박수).....

“그리하여 1976년에 가서 벌방지대는 물론 산간지대까지 협동농장원들이 세대당 수입을 현금 1800원 이상을 유지할것이다. (박수)

“인민 소비품 생산이 빨리 늘어나는데 따라 전반적으로 소비품의 값을 30%이상 낮추며 근로자들이 많이쓰는 대중 소비품의 값은 50%이상 낮추도록 해야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다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당은 공산주의 분배의 색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릴것이다.....

“6개년 계획기간에 사회문화주택들을 1.5배 늘이는것을 비롯해서 인민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시책을 실시하는데 계속 많은 대금을 자출할것이다.”

34) 조선노동당 제5차당대회에서한 - 인민경제발전 6개년(197~76) 계획에 대한 내각 제1부수상 김일의 보고.

제 2 절 혁명과 교육

북한공산당은 70년 11월의 제 5차 당대회에서 종합적 교육정책을 제시한바 있는데 그것이 투대가되어, "최고인민회의 제 5기 2차 회의에서는 상당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정책이 발표되었다."

그것은 김일성체제가 혁명수행의 과정에서 사회주의 교육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큰기대를 걸고있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본 과제의 주요한 연구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이제 그 전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고 인민회의 제 5기 2차회의에서한 정무원 부총리 박성철의 보고 내용을 간추려 보기로 한다.

"수령님께서 친히 집필하신 우리나라 사회주의 헌법에는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교육발전에서 이룩하신 자랑스런 역사적 승리와 성과가 법적으로 고착되어 있으며 모든 어린이들과 노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자라는 모든 세대들에게 1년동안에 학교전 의무교육과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은거레의 커다란 기쁨과 관심속에 열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과 1년제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분계를 토의함으로써 인민교육사업을 새로운 높은단계에로 발전시키며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력사는 28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전쟁으로 혹심한 파괴를 겪고 빈터위에서 그것도 세
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와 직접 맞서 침략과 전쟁의 위
험을 상시적으로 받고있는 것처럼 간고한 조건에서도 혁명의
전도와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하여 후대 교육사업에 헌신과
밀전을 넣어 10여만의 젊은 교원대열을 뚝뚝히 꾸리고 인
구의 4분의1이 정규학교에서 무료로 공부하며 온나라를 학
교의 그물로 뒤덮은 그러한 눈부신 성과와 변혁을 알지 못
하고 있다.....

“수령님께서 중요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나라의 사회주
의 공업화를 실현하며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야 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고
이미 우리당 제4차대회에서 7년제 중등외무교육으로부터 전
반적 9년제기술 외무교육으로 넘어갈데 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서는 1967년부터 전반적 9년제기술 외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해방전에는 단하나의 대학도 없었던 이땅위에 오늘은 세계
일등급의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해서 140여개의 대학과 5백
여개의 고등기술학교들이 있으며 여기에서 수많은 기술자 전
문가들을 길러내고 있으며 지방마다 종합적 간부양성기지가
꾸려져 간부에 대한 지방의 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되었다.

오늘 인민경제 여러부분에서는 우리당이 계속되는 난관과 애
로를 이겨내면서 큰힘과 밀착을 넣어 키워놓은 60여만의
기술자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으며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
하여 국가경제 기관들과 과학문화기관들 현대적인 공장 기
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이 훌륭히 관리운영되고 있다.

성인 교육사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전반적 문화기술
수준을 높일데 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이 빛나게 실
현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자 중학
교와 공장고등기술학교 공장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공부하
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어 자기의 희망과 소질에 따라 마음
껏 배우고있으나 다 일정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목적 의식적으로 참가하
고 있다.

“수령님께서서는 최근 1년간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
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시험을 전국적으로 교시하고 몸소
지도해주었으며 그 경험을 교육학적으로 심오히 종합분석
하고 우리 어린이들의 지적 발전수준과 사물현상에 대한
인식능력 신체 발육상태로보아 만 6살이되면 능히 학교교
육을 풀수있으며 중학교의 교육시험 결과에 기초하여 10
년동안에 의무교육기간에 중등교육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결
론을 내렸다.

수령님께서서는 지난해 7월에 열렸던 우리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 교시에서 새로운
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근본방향과 과학적 방도들을 전

면적으로 밝혀주고 국가의 부담이 크더라도 전반적 10년제
고등외무교육과 1년제 학교전 의무교육을 1972년 부터 점
차적으로 실시하여 6개년계획기간에 완전히 끝낼데대한 현
명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72년 9월부터 전반적
10년제 고등외무교육과 1년제 학교전 의무교육을 직접 실
시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참으로 전반적 10년제 고등외무교육과 1년제 학교전 의무
교육의 실시는 후대교육에 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크나큰 배려의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나라 인민 교육제도의
가일층의 완성이며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나라 사
회주의 제도와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온세상에 힘있게 과시
하는 뜻깊은 사변이며 사회주의 교육발전에서 획기적 의의
갖이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후대교육에 관한 원대한 구상을 구
현한 전반적 10년제 고등외무교육은 유치원 높은반에서 1
년동안에 학교전 의무교육을 거친 만 6살의 어린이들을 학
교에 받아 10년 동안에 학교외무교육기간에 고등중학교까지
의 완성된 중등일반교육을 주는 가장 선진적이고 발전된 교
육제도이다.

특히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과 10년동안의 학교외무
교육을 주는 전반적 10년제 고등외무교육이 실시됨으로서 우
리의 새세대들은 11년동안 국가의 혜택으로 완전한 중등
일반교육을 받고있다.

그것은 사실상 11년제 의무교육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교시하였다.

수령님께서 몸소 구상하고 마련해주신 11년제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의 년한이 가장 길고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교육제도이다.

새로운 의무교육의 본질적 우월성은 무엇보다 먼저 교육기간에 모든 새세대들에게 완전한 중등일반교육을 주는데 있다.

우리는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년 동안에 학교전 의무교육과 10년 동안의 학교 의무교육을 주는 새로운 11년제 의무교육이 년한과 교육수준에 있어서 가장 높은 형태의 의무교육이며 민주교육력사에 찬연히 빛날 현대분명의 위대한 전취물이라는 것을 똑똑이 자랑할 수 있다.

우리의 11년제 의무교육의 본질성 우월성의 다른 하나는 의무교육기간에 새 세대들을 혁명적 체제관에 골격이 튼튼히 선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움으로서 온 사회에 혁명화 로동 계급화를 나그치는 가장 혁명적인 교육제도라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0년제 고중의무교육이 전반적으로 실시되면 새로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이 혁명적 체제관의 골격이 서고 자연과 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진 유능한 사회주의 건설

자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 동계급화하며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전진시키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렇게 교시하였다.

새로운 의무교육은 후대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 사상 주체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열렬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는 것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삼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반적 10년제 고중 의무교육의 학제를 사육제 즉 인민학교 4년 중학교 6년으로 하며 중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를 중등반으로 5-6학년을 고등반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밝혀 주심으로서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 중등교육의 낮은 단계를 높은 단계의 사이에 련계를 잘 짓도록 하여 주셨다 새로운 학제는 의무교육을 맞춘 다음 누구나 다 대학에 직접 진학할 수 있고 고등교육의 수준을 높일수있게 안바침하여 주며 일하면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데도 좋고 인민군대에 복무하고 제대한후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유리한 합리적인 학제이다.

새로운 11년제 의무교육의 우월성은 또한 교육과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요구를 다 같이 옹기 결합시키고 있는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요구를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하는 것은 인민교육 자체의 발전 뿐만 아니라 나라의

혁명과 건설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칙적 문제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육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요구를 밀접히 결합시키는 것을 사회주의하에서 인민 교육 제도를 발전시키고 완성하는데서 언제나 틀어쥐고 나가야 할 근본 원칙의 하나로 보셨으며 나라의 경제 건설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의무교육 년한을 늘이고 교육 수준을 높이는 가장 올바른 방도를 밝혀 주셨다.....

“김일성동지는 당 정권기관 지도일꾼들은 학교들에 자주 나가서 당위원회에도 참가하고 교원회의와 학생회의에도 참가하여 교원들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교육강령은 바로 세워졌는가? 교원들이 강의를 바로하는가? 학생들의 학습열의는 어떤가? 교원들과 학생들의 관계는 어떤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애로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걸린 문제가 있으면 제때에 풀어 주어야 한다고 교시했다.

수령께서 가르친 바와 같이 각급 정권기관들과 교육행정기관 일꾼들은 교육내용에 대한 지도를 가장 중요한 임무로 강조하고 교육 교양의 내용을 옳게 장악지도하며 교원 학생들의 사상 생활과 학습정형을 구체적으로 요해하며 해당 대책을 세우며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의 요구대로 학교에 일상적으로 내려가 교육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하겠다.

“이와함께 자연 기초과목 교육에서 실험과 실습의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서 학생들이 배우 지식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그를 실천에서 잘 써먹을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모든 근로자들이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전반적 문화 기술 수준을 한계단 더 높여야 할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현 시기 우리당이 제기하고 있는 중요한 방침의 하나이다.

우리는 의무교육 기간에 모든 학생들에게 자동차 트랙토로의 운전 기능과 유선 무선통신 기능등 한가지 이상의 기술 기능을 습득 시킨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의무 교육을 마치는 학생들이 누구나 한가지 이상의 기술 기능을 가지고 졸업하도록 교육 내용을 편성하고 그 집행에서 엄격한 제도와 규율을 세워야 하겠다.

학교전 의무교육의 내용 편성에서는 교육학적 요구와 유치원어린이들의 연령상 특성에 맞게 만 5살의 어린이들에게 수령님의 어린시절을 따라 배우도록하며 말을 정확히 하고 인민학교에 입학하여 교수내용을 알아들을수 있는 필요한 어휘를 많이 습득시키며 견필 쥐는 법과 글씨 쓰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자모와 자기 이름을 쓰며 간단한 셈을 세고 숫자를 쓸줄 알도록 배워주는 방향에서 그 수준을 옹기 규정해야 하겠다.

학교전 의무교육을 해마다 일정한 비율로 실시하며 만 6살에 인민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이 학교전 준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학교에 입학하도록 1975년까지 일년제 학교전 의무교육을 전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유치원에는 종래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대신 낮

은반과 높은반의 두개반을 두고 높은반에서 만 5살의 모든 어린이들이 충분한 학교전 준비 교육을 받고 인민학교에 입학하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새로운 의무교육을 1972, 1973 학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인민학교에는 당면한 만 6살과 만 7살의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게 되지만 1972년부터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다 10년제 고등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우리는 1972, 1973 학년도 부터 고등학교 학제를 없애고 그대신 9년동안에 중등 일반교육을 받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대학예비과의 규모를 늘이며 고등기술학교는 기술전면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교육내용을 고치고 교수 중등전분과 양성의 질을 훨씬 높이며 앞으로는 고등전분학교로 완전히 개편하여 운영해야 하겠다.....

“새로운 11년제 의무교육의 실시는 미제의 식민지 정책과 그 앞잡이들의 군사 잭소통치를 반대하며 민주주의적 자유와 교육의 권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과 교원학생들에게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끝없는 동정심을 북돋아 주고 광명한 나날에 대한 희망과 승리의 심신을 안겨 줄 것이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으로 그들을 더욱 힘있게 불러 일으킬 것이다.³⁵⁾.....

“수령님께서 밝혀준 방침에 따라 우리는 전반적 10년제

35) 최고인민회의 제 5기 2차회의 제 2일 오후의 소식증 정무원 부총리 박성철의 보고. 월간 공산권연구 극동문제연구소. 1973년 4월호 35면 이하.

고층외무교육과 1년제 학교전 외무교육을 도시 노동자들
로부터 농촌으로 농촌에서는 끝방지대로부터 산간지대로
점차 확대되어 나가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매해 만 6살에
학생들을 일정한 비율로 인민학교에 받아 6개년제학 기간
에는 모든 지역에서 새로운 외무교육으로 완전히 넘어가도
록 하여야 하겠다.”

제 10 장 경제합작과 남북연방론

72년 하반기 부터의 남북대화는 한국의 민족주의라는 관점에서조차지 않은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대화의 과정에서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가 비교될 뿐만 아니라 동질성이 부각됨으로서 폐쇄된 북한 사회의 예외되고 억눌린 민족주의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억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대화에 의한 민족판념의 부활 및 양양을 허용치 않았으며, 급기야는 남북대화 자체를 단절의 상태로 몰고 갔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남북연방제와 남북경제합작론을 고창하는 등 한국의 민족적 감정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고 빈틈 없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측이 주장하는 남북연방제와 경제합작론의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 보기 위하여 “합작과 관련한 논조” 및 “「체코」공산당 및 정부 대표단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한 연설의 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북과 남의 경제합작 방침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조국통일분야에 구현한 것으로서 남북공동성명의 요구와 나라의 구체적 실정, 우리인민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한 가장 올바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방침입니다.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구현해서 의세에 의존하거나 의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면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 등

시에 경제에서 외자에 의존할 것만 아니라 북과 남이 합

작해서 전국적 범위에서 경제적 자립을 확립하는데로 나가

야 합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예측되면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승강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도 다른 나라에 경제적으로 의존

하거나 예측되면 정치적 자주성과 민족적 존엄을 고수할

수 없고 식민지 노예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민족이든지 경제적으로 자립해야만 정치에서 자주성을, 경제

하고 민족적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나라의 정치적 독립과 자주성의 물질적 기초입니다.

북과 남이 경제적으로 합작해야만 민족내부 원천과 우리

인민 자신의 힘에 의거해서 전국적 범위에서 경제적 자립

을 이룩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습니

다. 북과 남사이의 경제합작은 조국통일위업 자체 필수적

요구입니다. 갈라진 나라를 하나로 합쳐 조국통일을 이룩

하자면 단일한 민족경제권을 형성해야 합니다. 단일한 민

족경제권은 자주독립국가의 물질적 기초이며 기본요구입니다.

북과 남이 경제적으로 합작해서 끊어진 경제권, 령계를 확

복하고 단일한 민족경제권을 형성해야만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경제합작은 이는 더는 직제할 수 없는

절박한 분계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로 양단과 민족분열은 북의 남조선 인민들을 해아릴

수 없는 불행과 재난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민족의 토착

민족해방과정에서 남조선 경제는 완전히 외국
독점자본의 지배경제로 전락되고 원료난, 판로난, 자금난 등
으로 남조선의 민족공업은 전면적으로 파산 불타당하고 있
... 습니다. ...

“남조선의 민족경제를 바로잡고 도탄에 빠진 남조선 인민
들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족경제의 통일적인
급속한 발전을 위해서 사라져가는 민족의 공동성을 호소하
고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북과 남의
경제합작은 지체없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북과 남이 경제적으로 합작하지 않고서는 남조선의 경제
적 파국을 수습할 수 없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개
선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나라를 막론하고 중공업 없이
는 경공업과 농업발전을 발전시킬 수 없고 인민생활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은 경제학의 초보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나라
에서의 이러한 중공업은 공화국 북반부에 있습니다.

“북과 남의 경제합작은 경제치리적으로도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북과 남이 경제적으로 합작하면 원료난, 판로난,
자금난에 직면하고 있는 남조선의 민족공업은 민족내부 원
천에 의해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높은 값으로 해결하
여 정상적인 조업을 보장할 수 있으며 넓은 국내시장에
의거하여 환보난을 해결하고 자들의 회수도 원활히 보장함
으로써 생산을 활발히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북반부의 근로자들은 자기들이 건설한 자립적 민족
경제가 남조선의 민족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하루 빨리

이용될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경제합작은 력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뜨거운 동포애 분위기에 있어서 진행될 것인바 그것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인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는 노력사정으로 해서 철광석을 미처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는 실업자가 없고 노력이 능히 모자라는 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에서는 철광석이 없어서 제철공업에 지장을 가져오고 있으며 실업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남조선측이 노력을 내고 우리가 설비와 기술을 내서 철광석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남조선의 제철공업은 구차하게 남에게 매어달리지 않고도 민족내부의 자원에 의거해서 원료문제를 민유직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방황하며 이역만리 외국 착취자의 노예로 팔려가는 남조선의 실업자들은 제나라 제땅에서 일자리를 보장받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지하자원도 공동으로 개발하여 민족경제의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북과 남이 어업합작을 통해서 나라의 수산자원을 공동으로 개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삼천리 바다가 둘러싸여 있으며 무진잡한 수산자원을 장지구하고 있습니다. 동서남해의 우리의 어민들은 예로부터 명태, 돈오로묵이, 청어, 대구, 이민수, 조기, 구들어, 공치, 멸치, 남지

황어, 까마리 등 고기떼를 따라 가을이면 북에서부터 남으로
도미는 남에서부터 북으로 조국의 바다를 마음대로 오고
가면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고 인민들에게 반찬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가 양단되고 인공적인 장벽이 가로막고 있음
으로 해서 북반부의 어로공들과 남조선의 어민들은 제나라
제바다에서 북과 남을 오고 가면서 마음대로 고기잡이를
하지 못하고 있고 나라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민족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개발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다.

지금도 명태철이면 북반부의 동해어장에 수백만톤의 명태
떼가 밀려들고 있으나 대형화, 현대화, 만능화된 우리의 대
규모의 어선들도 미처 다 잡지 못하고 많은 것을 그대로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북과 남이 어업합작을 해서 북과
남의 어장들을 서로 개방하고 북의 어로공들과 남의 어민
들이 북과 남의 바다를 마음대로 오고 가면서 고기잡이를
한다면 우리는 명태를 비롯해서 많은 물고기들을 더 많이
잡아내어 북과 남의 수산업을 더 빨리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어로저지선과 군사연습 등으로 고기잡이에 제
한을 당하고 남의 황금어장마저 일본 해적선들에게 빼앗기
고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수 100만의 남조선 어민들의
생활을 회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과 남은 수리화를

(완성한 북반부의 경제를 개발할 때를 이용하여 남조선에서
관개수리공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남조선 농촌에서 해마

문제를 위로 이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은 이 문제를 위로 미루고**
기적, 점차적으로도 **부차적으로 문제들이나 이리저리한 관계를 거의 점차적으로 해**
호상신임을 두터이 **결하자고 하고 있다. 이것을 진실로 호상신임을 두터이**
이 아니며 민족분열 **하고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자는 것이 아니며 민족분열**
의 분열을 유지하며 **위 스타린 상책을 그대로 두고 나라의 분열을 유지하며**
고정화해가는 것이다.

을 바라고 **남조선 당국자들이 참말로 평화통일을 바라고 평일문제를**
장을 버리고 **실질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어떠한 입장을 버리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촉진하기 위해서는 **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 **한 북과 남사이의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
실현해야 한다. **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해야 한다.**

교류는 통일이 전제조건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는 통일이 전제조건**
이다. **북과 남사이의 전제를 마련하는 데서 중요한 위의를 부가한다.** 북과 남사이의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가 실현되어야 북과 남사이의 평화협**
정도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히 개선하자고 **남조선 당국자들은 말로서만 사회를 공안전하 개상하자고**
온갖 장벽을 두너 **하면서 도 심지어 있어서는 남북사이의 온갖 장벽을 두너**
이와 교류와 합작을 **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남북사이의 교류와 합작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

합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동족끼리 합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없이 끌어 들여 **남의 의사와 결탁하고 의대목적 자신을 제한없이 끌어 들여 남**
인연시키고 있으며 **심조선 경계를 완전히 에속 경계로 전변시키고 있으며**
하고 있는 **경해선임까지 이어는 의국에서 오물만지로 막착화하고 있는 동족상합작**

지루 불어들어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어럽히고 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민족적 양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우리 나라의 자업부연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우리 민족에 이롭게 경제를 발전시키며 모든 분야에서 민족

적 합작을 실현하는데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한

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

기 위해서는 북과 남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조국통일

을 위한 거족적인 애국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다만 북

과 남의 당국자들 사이의 범위에서만 그칠것이 아니라 전

민족적인 범위에서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북반부의 노동자, 근로청년, 근로인메리

친청년학생, 병사들과 남조선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군인, 민족

자본가, 소자산 계급과 같은 북과 남의 각계 각층 인민들과

정당, 사회단체, 등의 대민족회의를 조직하여 나라의 통일

문제를 광범히 협의하여 해결할것을 제의한다. (박수)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것

은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나라에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는 물론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조국통일 조건에서 대민족회의를 조직하고 민족대표

단결을 이루고서 남북한이 북과 남이 (합권하는) 두기되는

장부감소 무력투쟁으로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을 통일을 실

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한다.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연방국가외 국호는 우리나라와 반도위에 존재했던 통일국가로서 널리 알려진 고려라는 이름을 살려 고려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것이 좋을 것이다.

(박수)

이것은 남북 쌍방이 다같이 접수할 수 있는 좋은 국호로 될것이다. 고려연방공화국의 창건은 나라의 분열을 막고 북과 남사이의 관계와 합작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완전한 통일을 앞당기는 길에서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 놓게 될 것이다. (박수)

우리는 우리나라가 2개조선으로 영원히 갈라지는 것을 막아야하며 대외관계 분야에서도 북과 남이 공동으로 나가야 한다고 인정한다.

우리는 물론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이것을 두개 조선을 조작하는데 이용하려는 온갖 책동을 전격히 반대한다.

우리는 유엔에도 북과 남이 각각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기전에 유엔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연방제라도 실현된 다음 고려연방공화국의 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들어가야 한다고 인정한다. (박수)

그러나 유엔가입문제와는 달리 유엔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가 상정 토의되는 경우에는 용당 우리 공화국 자체가

당사자로서 거기에 참가하여 발언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온 한 나라의 민족으로서 결코 둘로 갈라져 살수 없다. (박수)

남북사이에 중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수 각계 각종 인민들과 정당 사회 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 민족회의의 소집, 고려 연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 실시, 단일한 고려 연방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인민의 조국 통일방안이 실현된다면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우리인민과 세계인민의 공통된 염원에 맞게 평화적 조국통일의 력차적 위업을 성취하는데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박수)³⁷⁾

37) 한국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과 관련한 북한반응

— 「체코」 당 및 정부대표단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 — (수보)

일간 공산권연구 극동문제연구소, 1973년 6월호 22면이하

제 4 장 종합과 결론

(1)

“북한사회와 민족주의의 분계”라는 과제를 연구고찰함에 있어 우선 자료와 문헌의 제약은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해방후 28년간이라는 장구한 세월동안에 변질되고 개편된 북한 사회의 구조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남북한의 단절이 너무나 심각하며,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나도 빈약하다. 특히 북한의 폐쇄된 사회체제와 공산당에 의한 매스컴, 매스·미디어의 독점지배등으로 인하여 북한에서 새어 나오는 모든 자료와 문헌의 객관적 신빙성이 지극히 미약하다는 점에서 여타의 북한문제 연구와 마찬가지로 다대한 제약을 모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본연구는 주로 거시적 고찰과 장기적 전망으로 일관할 수 밖에 없었으며, 한 사회의 구조를 세부적으로 분석 고찰한다거나 북한의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미시적인 입장에서 관찰할 수가 없었음을 밝혀 두어야 한다.

1948년 일본이 패망하고, 한반도가 분단되어 북한에서 소련군의 군정이 실시됨으로써 북한에 공산주의가 이식, 배양되는데, 한국의 전통적문화기반과 조화될 수 없고 공산주의를 북한에 강제적으로 이식하기 위하여 소련군정은 김일성을 두목으로 하고 일단의 직업적 공산주의자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주로 독립수단에 의거하여 기존 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들어 가는 혁명방식을 취하였던 것이다.

북한사회에 세력기반이 없고 김일성 일당은 소련군정의 후견과 지원이 없이는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가 없는 처지였으므로 소련군정의 도구가 되어 기존의 민족주의세력을 타도하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김일성은 소련군정의 신임을 독차지 할 수 있었으며, 소련군정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북한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을 강행할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북한에서의 초기사회주의혁명은 반민족적 양상이 농후하였으며 따라서 김일성체제의 성격도 소련군정의 괴뢰이상의 것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김일성체제로서는 사회주의혁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왜곡된 것이거나 민족주의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일제의 잔재를 숙청한다"는 명분하에 폭력혁명을 스스로 합리화 하였던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일제의 잔재를 숙청한다는 명분하에 민족주의를 가장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소련을 "조선민족해방의 운인"이라고 떠 받들어서 반민족 초민족주의의 입장을 취한 것이다. 무제한 폭력의 난무가 "일제의 잔재숙청"이라는 명분으로 합리화되고, 기존질서와 사회구조의 전반이 폭력수단으로 파괴되고 개편된 것이 북한판 사회주의 혁명의 실태이다.

그러한 전지에서 한국인의 대일감정을 가장 교묘하게 활용한 것이 김일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폭력혁명의 과정에서 구질주, 토착적 지식층, 중산적계층이 광범히 숙청 제거되고 빈농, 소작인, 노동자계층이 사회구조의 상부계층에 올라 앉는 작업이 강행된 것은 물론이다. 북한에서 숙청되고, 추방된 계층은 대부분이 월남피난 함으로서 그러한 사회주의화의 과정이 촉진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에 잔류한 몰락계층은 혁명과정에서 하부계층으로 흡수, 통합되거나 극소수가 투뇌와 기뉴를 인정받아 재동용되었으나 사회구조

수정주의의 파동을 겨우 수습한 김일성은 체제유지라는 관점에서 대외적 외교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당내의 모든 이질적요소를 완전히 불식하는 한편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를 이룩하는데 광분하였다. 상상할 바와 같은 58년에 완결되었다는 사회주의적 경제체제 58년에서 59년 사이에 강행된 소위 중앙당집중지도라는 이름의 광범하고 철저한 숙청작업등이 그것을 입증한다.

미·소의 평화공존은 1962년 10월의 쿠바사태로 결정적인 고비를 넘기게 된다. 쿠바사태에 소련공산당이 취한 조치를 김일성체제는 지극히 중대시하였다. 국제정치에서 공인된 지위가 없으며, 아직도 물량과 기술면에서 소련에 의존하지 않을수 없는 김일성체제로서는 미·소의 평화공존이 소련으로 하여금 쿠바사태에서 본 것처럼 김일성체제의 존립분계자체를 미국과의 평화공존을 위한 거래조건으로 활용하도록 불고 나아 가지나 않았을까 하는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김일성이 소위 사대군사노선을 천명하게 된것도 그러한 국제정치적 상황에서였고, 65~66년에 이르러서 자주노선이라는 것을 주창하게 된것도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것으로 사료된다.

외부의 지원이 없이도 연명할 수 있는 자급자족적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자립이고 수정주의의 파동과 계국주의의 위협에 걸리어 내는 것이 자주 혹은 자위이며, 반수정주의적 교리와 태세를 다짐하는 것이 주체사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위 김일성 유일사상이 김일성체제의 기본교리로서 제창되고 그것이 광신적인 실천적과제로서 제기된것이 65년이후의 일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로써 북한사회는 더욱 폐쇄되고 교조적독선이 더욱 미덕화되고 일제의 이질적 요소가 철저하게 배제되는 광적인 상태로 급경사하게 되었다. 구형과 김일성유일사상과 가지는 한일·반미·극반식민주의, 민족해방주의로 요약될 수 있으므로 결국 김일성은 북한사회를 목적으로 민봉해 놓고 일종의 전투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호소해서 스스로의 권력구조를 유정강화하는 수법을 놓고 있는

의 전반에서 볼 때 그 수와 영향력은 미미한 것에 불과하다.

노동대중을 기반으로 개편된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는 4월의 사회주의혁명 하에 6.25 남침을 감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미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부러의 남조선의 해방을 위한 투쟁"으로서 명분화되었다.

6.25 남침은 실패로 돌아가고 전쟁중에 북한지역은 극심한 파괴를 입었으나, 다른 각도에서 볼 때 김일성의 사회주의혁명은 전쟁으로 인하여 촉진된 면이 없지 않다. 동탄중에 또다시 수백만의 북한 주민이 자유를 찾아서 남하하였고 6.25 전까지도 다소 남아 있었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유업 등이 거의 완전히 도태됨으로서 사회주의화가 크게 진전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7.27 휴전이 성립된후 북한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제국으로부터의 불쌍지원으로 시급한 전후복구를 이룩할 수가 있었으나 56년에 이르러 미국과의 평화공존을 다짐하고 나온 소련의 수정주의노선은 김일성체제에게는 심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당시의 김일성체제로서는 수정주의에 따르자니 혁명이 안되고, 교조적 혁명노선을 고수하자니 소련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지극히 곤란한 국면에 처하고 있었다.

소련에서 수정주의가 나온 후로 중·소관계가 미묘해졌고, 58년에는 중공군이 북한에서 철수 함으로서 김일성 체제는 더욱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김일성은 사회주의혁명의 철저화에 의한 일종의 자급자족적 체제의 구축에 몰두하게 된것 같다. 1958년에 이르러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일단 완결되었다고 말한 김일성의 회고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소련의 수정주의노선과 파동이 북한공산당의 내부에도 파급되어 56~58년간에 상·하를 유절당자도체제를 주장하는 혹은 김일성의 독재와 독주에 항거하는 당내의 내분이 겹치는 등 김일성으로서의 최대의 시험을 겪었던 것이다.

것으로 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1962년 류바사때 김일성이 중공과 합세하여 소련의 수정주의 노선을 규탄할 사실은 상술한 바와 같다.

조그로 인하여 소련공산당은 북한공산당을 이단시하게 되어 김일성은 62~64년 사이에 소련으로 부터 소외당하게 되고, 군사경제원조도 거의 단절되다 싶이 하다가 64년 가을에 후르사코프가 실각하고, 65년에는 소련이 월남전쟁에 깊이 개입하여 국제적 반제공동전선의 기치를 높이 올리게됨으로서 김일성도 소외된 상태를 겨우 모면하게 되었다.

월남전쟁이라는 반제공동전선에서 김일성이 수행한 역할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전개함으로써 월남전쟁을 측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8년 소의 1.21 사태, 프에블로 호 사건 그후의 EC-121 정찰기 사건을 전사진동이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한 것이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서 김일성은 소련으로 부터 다량의 군사, 경제원조를 얻어낼수가 있었고, 공산권내에서의 주에스티지도 크게 상승이 되었던 것인데,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월남전쟁을 측면지원하는 동안에 김일성 유일사상체제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프에블로 호 사건과 EC 121 정찰기 사건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용징을 단념할 사실을 두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침공을 물리쳤다"고 선전함으로써 김일성은 스스로를 반제 반식민주의,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의 영웅으로 우상화하는데 다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김일성유일사상 체계와 김일성의 **우상화가 촉진됨에 따라서, 북한**
측의 대남전략 즉 혁명통일노선도 확고해 갔다. 북한에 대한
미제의 침공을 물리친 "역세를 가지지 않는 남조선 혁명군을 완수할
으로서 민족해방과 남북통일을 완결짓자"는 것이다. 북한을 남조선
선해방의 혁명기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를 축출하고, 제 급혁명을 강행하여 적화통일
을 이룩함으로서 김일성 유일사상은 구현화될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하여 김일성의 독재에 절대 복종하고, 일제의 물욕과 인간적인 욕
망을 절제하고, 오로지 김일성이와 그의당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
야 한다는 교리가 오늘의 북한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기본적인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관찰할 때 2차대전 전후의 미, 소 냉전기, 한국전쟁 전
후의 미, 소 냉전기, 월남전쟁이라는 소위 대결상황을 극복수단을
여건하에서 김일성체제는 성장하였던 것이고 각기의 여건과 상황하
에서 김일성은 해방된 민족주의를 체제유지의 동력으로서 정략적으
로 활용하였음을 지적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이 주장해온 민족주의는 배타적, 폐쇄적, 호전적,
폭력적, 교조주의적인 민족주의이며, 그러한 민족주의가 뒷받
치는 북한사회는 구조적으로나 내용면에 있어서나 획일화, 단일화된
북부사회가 아닐수 없는 것이다. 김일성 유일사상이 고강도에 따
라서 북한사회의 획일화, 집단화, 조직화는 촉진되었던 것이다. 루
그러하여 현재로 적어도 의형상으로는 김일성유일사상을 외교적

월남전쟁의 축소화와 미국의 낙후. 북베트남은 김일성체제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 된다. 구들은 월남전의 종식과 미국에 새로운 아시아정책이라는 여건에 대처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고, 그러한 배경에서 70년 11월의 제5차 북한 공산당대회의 성격과 의의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북한측으로서는 월남전쟁의 종식에 따라 소련으로부터의 물량과 정신적 지원이 감소될 것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다음에는 국제적 긴장완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아시아정책 특히 미중공관계의 급변에 따른 한반도정세의 분해, 즉 한국과의 관계를 심중히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소련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이 줄어들고, 미중공관계가 급변하는 마당에 유독 북한이 구대의 연합 호전적 자세를 견지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하여 북한 공산당내의 합리주의자들은 깊이 통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장차 아시아 정세가 긴장완화의 방향으로 흐르고 그러한 경향이 한반도에도 파급될 경우, 국제정세의 긴장상태를 빙자하여 국한적 현종과 내립을 북한주민에게 강요하는 종전의 지배방식이 자칫 어긋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 그들로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북한공산당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면적 정세가 긴장완화로 흐르리라는 전제하에 그러한 정세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제5차 공산당대회에서 당적으로서 확립하였던 것이다. (경제건설 6개년계획)

1. 김충환도사와 같이 제5차 북한 공산당대회에서 총천의 군사력 증
강위중임 경제정책에서 경제개혁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꾀하는 등
산업분야의 건설
분야는 남한으로 정통관하여 진행되었다는 데에 의하여 회의의
작적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경제의 자립적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경제생산력 증진발견과 생활의 생활조건향상을 위한 청공업 및
농, 수산, 목축업의 확대개발을 표방하였다. 평화산업, 소비경
제분야에 대한 개발계획이 당대회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은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대중의 의, 즉 주 한반에 대한 계획으로서 북한
의 리준에서는 계획적인 계획에는 불림이 없는 것이다 하겠다.

제5차 당대회에서 또 하나의 큰 계획은 10년제 의무교육제를
표적으로 하는 교육계획이다. 그 내용도 전장에서 소개한 바 있
지만 국제적 긴장완화의 상황속에서 김일성체제가 교육사업에 얼마
나 역점을 두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한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그처럼 원대한 교육계획의 목적
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그것
은 첫째가 김일성 유일사상의 삼부침윤을 위한 사상교화에 있고
둘째는 공업구조의 발전에 수반될 기술자와 기능공의 다량 양성에
있다. 부가할 것이다.

두루뭉실한 경제개혁을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로 달성될 것인지는 미지
수일 수 있지만, 만약은 차질이 없이 달성이 된다면 북한사회의
전반에 불심양면의 큰 변화를 출수있을 것이다. 극한적인 인공과
내림을 강요당하던 대중의 생활에 상대적으로나마 분질적 여유가

생기면 정신상태와 의식구조도 그에 따라 변화할 것이고 좀더 나은 생활 좀더 자유로운 생활을 회구하기 될 것이다. 김일성은 그러한 가능성을 예상하여 순장주의와 부활을 심취하고 자생적 재무장을 추구하고, 10년제 의무교육제 실시공간으로 하는 교육사업으로 사상교육에 만전을 기하려 한 것 같다.

그러나 국제적 긴장완화와 출생의 땅 불어 남북간에 중대화의 논의 열렸드시 잘차 남북대화각 진전되고 계발의 교육발제가 실현되어 남북한의 체제경쟁이 본격화되면 구 영향은 북한사회전반에 파급되고 일련의 연쇄적반응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김일의 북한사회의 현실로 보아 그 범위와 관통은 한정된 것이 틀림없겠으나, 더 나은 생활과 좀더 자유로운 생활에의 회구에서 북한의 낙후된 생산성과 과학기술의 수준에 대한 심각한 각성등 그내용은 다양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5차 당대회이후로 북한측이 일본과의 자본 및 기술협력에 열을 올리고 있음을 상기할 때 일본과의 자본 및 기술협력이 북한의 6개년계획을 추진하는 하나의 동력으로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북한의 대중이 감지하게 된다면, '반제 반식민주의, 민족해방'의 기치하에 유지되고 있는 김일성체제의 정략적 민족주의도 하나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동일한 이치에서 장차 한국의 안보가 유전협정, 미군사령부, 주한미군과 대체될 수 있는 어떠한 조직체유 보장될 경우, 반미주국 통일전선을 표방하는 김일성형 민족중의는 등 종말을 구할 계를 찾아

다. 결국 근본적인 분계는 어떻게 하면 북한사회가 김일성 유일사상와

이후에서 제어할 수 있는 계기와 조건이 조성될 수 있는가에 대해
재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사회가 김일성의 특창적인 정략적 민족주의
의 미봉에서 벗어나, 민족의 동질성과 동포애에 각성하고, 한반
도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 그리고 나아가서 국제사회에서의 유
리민족의 구원한 번영을 추구하는 공통적 이상으로 접근할 때
비로서 진정한 민족주의가 북한사회에서 요동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는 가설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만 상술한 바와 같
은 북한의 야심적인 경제 및 교육의 발전계획이 추진되고, 상당
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북한사회에 광범한 '베크누크라트'
의 재종이 형성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며,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
할, 주변에 대한 영향력도 증대되리라 고 예상할 때, 그들이야말로
말로 북한에 있어서의 민족주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재종이라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가능성을 김일성 자신도 의미있게
예전한듯 김일성 유일사상 교리의 철저화를 위하여 10년제 의무교
육제에 다시 1년을 추가하여 학령전의 11년간을 의무적으로 유
치원급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11년제의 교육제도를 추진과
정에 옮기고 있는 것도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다.

그리고 72년 봄에 발표된 북한 공산당 정치위원회 결의서권의 김
정일의 혁명통일에 관한 변화없는 교리와 재천명도 북한사회의 유
유화적 변질 내지는 민족주의적 전향을 봉쇄하려는 전위책임을 나
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북한측이 국제정세의 격동완화
를 불가피한 추세로 보고, 한국과의 접촉과 대화를 예상하여 평

화산업과 대중의 생활개선을 위한 경제계획과 거대한 교육계획을
천명하게 된것은 북한측이 추구해온 교조주의의 호전적로선에서 점
차로 이탈될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곤란한 하나의 파라독스임에는
분림이 없다.

전쟁과 혁명지상의 호전적민족주의를 세계사의 진운과 시대적 조
류와 부합되는 개방적이고 협조적, 진취적인 평화지향적 민족주의로
유도하는 분계는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며, 접근의 방법부터가 이
만저만한 난제가 아닐 것이다.

북한사회의 구조가 어느정도까지 변질되지 않고서는 그러한 변화
를 기대하기 곤란한 것이 급일의 상황이지만, 우선 현대 Commun-
istation의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북한사회의 상부계층 (당로
행정관료, 교수, 과학자, 기술자등 일반적 엘리트계층)을 상대로 일
보일보 접근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착실한 방안일 것이다.

수정주의의 전파를 두려워하여 과학 기술자를 동구공산권에도 유
학을 안시킬 정도로 경직화, 폐쇄화된 북한사회에 어떠한 내부적
활동을 통해서 순수한 의미의 민족주의 태동을 조성한다는 것은
현재와 같은 긴장과 대결의 상태하에서는 극난한 것이며, 남북대
화의 추이등 일련의 사태진전을 관망하면서 타개책을 강구할 수 밖
밖에 없을 것이다.

물의를 시정조치하는 것은 제3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북
한측은 남북대화의 문이 열린 이후로 남북한의 경제합작과 연방제
의 실현을 위한 계획적 통용자료를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듯 한 태도로
나오고 있으나, 그내용을 보면 반제, 반식민주의, 사회주의혁명과
민족해방의 가치관에 구애를 받지 않는 유일사상의 정략적 선전에 불

파하며, 그러한 수법으로 한국사회의 감상적 민족주의에 편승하려는
저의 불 깊이 경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